

# 다시 만나는 '시인 김현구'

“시심에도 불려갈 듯 보오이니/ 떠 있는 은빛 아지랑이 꺼져 퍼르/ 먼산 들레 구비구비 놓인/ 같은 하얗게 빛납니다./ 임이여/ 강물이 뚝시도 퍼랑습니다...”

1930년대 김영랑 시인과 함께 시문학과 동인으로 활동한 김진출 신 김현구 시인(1904~1950)에 대한 조명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김진출 시문학과기념관은 '9월의 시문학과 동인'으로 김현구 시인을 선정하고, 오는 18일 시문학과기념관 세미나실에서 '남이여, 지금도 강물이 퍼랑습니다'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구 시인의 차남 김문배(73·경기도 부천시)씨를 비롯해 김은희(장녀)·장희(3녀)·병희(4녀)씨 등 유가족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김선대 교수(목포대 국문학과)를 초청해 '비애와 무상의 시학'이란 주제로 문학강연을 갖는다. 김 교수는 이날 김현구 시인이 그동안 문단에서 소외된 원인을 밝히고, 작가의 시세계 전모를 고찰해 정당한 문학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틀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문예특기생 강경옥(강진 성요셉고 2) 학생에게 '현구 시인 문예장학금'을 전달한다. 장학금은 시인의 자녀들이 1300만원의 기금을 모아 지난 2000년부터 매년 문예특기를 가진 강진지역 고교생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해오던 것을 올해부터 공식화했다.

또 1970년에 조직돼 유고시집 발간과 시비 건립사업 이후 뚜렷한



1940년 5월 김현구(뒷줄 오른쪽 두 번째)와 김영랑(뒷줄 왼쪽 첫 번째) 시인이 지인들과 경주 분황사 여행 중에 촬영한 기념사진.

## 기념사업회 재출범·시 연구 등 재조명 활발

## 강진 시문학과기념관, 18일 문학행사 다채

활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현구 기념사업회도 42년 만에 재출범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현구 시인에 대한 학계의 반응도 뜨겁다.

지난 1996년 목포대 김선대 교수는 지난 1996년 '김현구 시 연구'로 원광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시문학과기념관 김진출 학예실장이 그의 문학공간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연구로 전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이어 이달말 발행예정인 전남대 한국어 문학연구소 '어문논총' 23집에 '김현구의 시문학 공간연구'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현구 기념사업회가 새롭게 출범하면 영랑 기념사업회와 더불어 강진문학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출신 김현구 시인은 1921년 영랑 김윤식 시인과 함께 '청구' 동인을 결성해 활동했으며, 1930년 5월 '시문학' 제2호에 '임이여 강물이 뚝시도 퍼랑습니다' 등 주목받은 작품 4편을 발표하며 시단에 나왔다. 하지만 생전 시집 한 권 발간하지 못하며 1930년대 '시문학' 동인으로 두각을 보였던 김영랑, 박용철, 정지용 시인과 달리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사후 20년만인 1970년 현구 기념사업회에 의해 유고집 '현구 시집'이 간행돼 본격적으로 학계의 조명작업이 이뤄졌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i@

# 피해농 외면한 '특별 재난지역'

## 특별지원 없애 1만㎡당 혜택 524만원 줄여

## 지자체는 복구비 국고 추가 지원... 부담 완화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큰 피해를 입은 나주시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배와 수도차, 원예특작물 등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지원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5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원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지난 2006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대폭 완화한 반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기준을 없

어면서 농가의 직접적인 손해가 크게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06년 개정 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대과대 85%, 농약대 100%, 농립시설 45%, 주택과손 40% 지원은 물론이고 2ha 미만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500만원, 50~80% 미만은 300만원, 주택도 290만~5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전면 삭제됐다.

배 1만㎡를 재배한 과수농가의 경

우 피해율을 80%로 산정하면 2004년 태풍 '메기'때는 특별위로금 500만원과 일반지원금 174만6000원이 지원됐으나, 이번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에는 규정이 없어 특별 위로금은 지급되지 않고 일반지원금 150만원만 지원되면서 모두 524만원의 혜택이 줄어들었다.

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지원은 줄었지만,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은 대폭 줄었다.

나주시의 경우 일반재해 때는 피해액의 3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했으나,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

방비 부담액의 50%를 지원받을 경우 시 부담률은 12.5%로 줄어들게 된다. 임성훈 시장은 "개정된 관련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완화해주고 사유시설의 피해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취지이기 하지만 모든 정책은 수혜자의 눈높이와 체감지수를 반영해야 한다"며 후속 지원책을 마련해 건의했다.

시는 구체적으로 법 개정 이전수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상금 지급과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한 재난지수 300미만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규모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건의문에 포함했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ong@



## 태풍 피해 현장 답사

중앙 합동조사단이 지난 10일 강진군 도암면 만덕 방조제 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강진군은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공공시설 127건(74억9900만원), 사유시설 3057건(166억2700만원) 등 총 3184건 241억26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강진군 제공>

## 장흥 장평면 축협

## 한우직판장 개설

장흥군 장평면 소재지에 축협 한우 직판장이 문을 열었다.

장흥군은 지난 6일 이명용 장흥군수, 한계용 장흥군 축협조합장을 비롯한 면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축협 한우 직판장 개소식을 가졌다

장평면과 장흥 축협은 장평면 골프장이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골프객들의 소재지 식당 이용이 저조하다는데 공감하고 골프객의 상가 이용률을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축협 한우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직판장을 개설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 전 북

## 남원에 향장학숙 건립 탄력 각계 기탁 1억7천만원 모금

남원시가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애향장학숙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사)남원시 애향운동본부는 최근 애향장학숙 건립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갖고 "서울지역 기숙사 입사 경쟁이 치열하고 원룸 등 학부비 비용 부담이 너무 커 우수 인재가 서울지역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학숙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여론 조사결과 84.4%가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건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애향운동본부는 장학숙 건립의 당위성과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고 시

민,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동참을 호소했다.

현재 애향장학숙건립 기금모금에 시민, 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1억7000여만원을 모금, 탄력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2009년 7월 33억원을 들여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립을 위한 기금(25억원) 모금을 벌이고 있다.

애향운동본부 김상근 이사장은 "경제사정 악화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시민·사회단체·재·향우·독지가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 부안군수 度 넘은 '인사전횡'

## 친인척 2명 서기관으로 임명하고

## 중학교 제자 3명 사무관·6급 승진

부안군의 불공정한 인사조치에 대해 군민들의 불만이 높다.

부안군의회 박천호 의장은 지난 6일 열린 236회 제 5차 본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소한의 원칙과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무시한 인사행정 편의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호수 군수는 지난 2007년 12월 민선 4기 취임 이후 친·인척 2명을 각 서기관으로, 부안 S중학교 제자 3명을 사무관과 6급으로 승진을 시키는 등 인사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공직사회에서 가장 큰 동기부여는 승진으

로 인사정책의 잘못은 공직사회의 운영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면서 "부안을 바로 세우고 미래를 확보하는 가장 현실적 행정을 위해 공평성·관한·책임·계속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직 공무원 김모(65)씨는 "부안군 인사정책은 열심히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 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한편의 코미디"라면서 "이를 대폭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단 신

## 전북대에 전국 최대규모 LED 식물공장

전국 최대규모의 LED 식물공장이 오는 11월 전북대 익산캠퍼스내 'LED 농생명 융합기술연구센터'에 조성된다.

LED 식물공장은 재배면적 1650㎡ 규모로 하루 100kg의 상추·청경채 등 샐러드용 채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된 채소는

현대 그린푸드를 통해 유통된다. LED 식물공장은 기존의 작물 재배방식과 달리 완전히 밀폐된 환경에서 LED 조명 등 인공적인 빛과 토양, 양분을 제공해 연중 균일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군산농기센터 '흰쌀쌀보리 요리교실' 운영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와 군산시 흰쌀쌀보리 명품화 향토사업단은 지역특산품인 흰쌀쌀보리 소비촉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흰쌀쌀보리 요리교실'을 개설한다.

요리교실 교육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고혈압·당뇨·과체

중 시민 25명이며, 17일부터 21일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요리교실은 군산대 식품영양학과 유영희 교수의 연구로 개발한 다이어트 보리죽, 저염보리 된장소스 등 30여종의 음식 조리 방법을 교육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 순창군, 28개 하천 붕어·잉어 16만마리 방류

순창군은 환경변화로 개체가 줄어든 토종어류를 보호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 6일 7개 읍·면 28개소 하천과 저수지에서 붕어와 잉어 16만마리를 방류했다.

군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8년여에 걸쳐 동계 장근목, 유

등 고병이, 군청 앞 경천, 유등화탄교 삼진강변 등에 은어·자라·참개·붕어 등 토종어류 142만마리를 방류해 오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생태계 복원으로 깨끗한 수질의 순창 지키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부안군 '농산물 명품만들기' 교육

부안군이 농산물의 품목별 명품 만들기를 위해 농가 조직화에 나섰다. 군은 최근 부안군 조합공동사업법인 주관으로 파·양파·감자 재배농가 80여명을 대상으로 브랜드조직화 명품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진흥청 김철우 박사와 지역농업네트워크 김소진 팀장이 강사로 나서 ▲재배기술교육 ▲수급조절 강화 ▲생산·판매전략 ▲생산자간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 다뤘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갯벌... 즐거움이 평평

지난 8~9일 '람사르 습지'인 고창갯벌 하전마을에서 열린 '생생 갯벌체험 축제'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바지락을 캐며 즐거워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 머물고 싶은 '고창 힐링 카운티'

## 한국관광공사 선정 우수 숙박시설에

고창 웰파크시티내 펜션시설이 정부가 지정하는 올해의 우수 숙박시설인 '굿스테이'에 선정됐다.

고창 웰파크시티(대표이사 이종균)는 시설내 '힐링카운티'의 황토 건강펜션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우수 숙박시설 육성과 건전한 숙박문화 조성을 위해 제정한 '2012 우수 숙박시설 굿스테이'에 선정돼 신규 등록됐다고 10일 밝혔다.

'굿 스테이'로 지정된 힐링카운티에는 서비스 아카데미, 온오프라인 홍보지원, 해외 벤치마킹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힐링 카운티'는 황토벽돌과 편백나무 소재로 지은 가족 건강펜션단지이다. 웰빙 트렌드에 맞게 내부

인테리어 또한 천연한지 등을 사용해 웰빙개념을 건축물에 실현, 석정 휴스파와 골프장 이용객은 물론 고창을 방문한 여행객과 수학여행단의 숙소로 활용되며 호평을 받고 있다.

고창 석정온천 관광지에 새롭게 조성 중인 '고창 웰파크 시티'는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은 물론 제테크와 일자리까지 윈스톱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든 자연치유형 가족건강 리조트다.

노인복지서비스 분야에서 탁월한 노하우를 인정받은 서울 시니어스타워가 서울 송도병원 의료시스템을 바탕으로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일원 150만㎡에 사업비 3039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